

고향 해남서 농사짓는 ‘농부시인’ 에세이 선봬

CULTURE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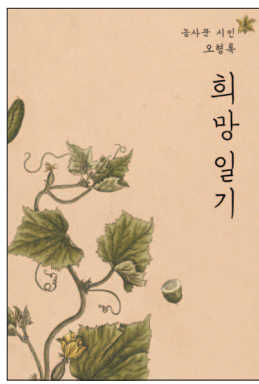
오형록씨 ‘농사꾼 시인 희망일기’ 출간

여러 시행착오 끝 정착…‘일본 여행기’도

서울에서 생활하다 연로한 모친을 모시기 위해 고향 해남으로 돌아온 뒤 농사에 전념해온 농부시인이 에세이집을 펴냈다. 주인공은 시골에 정착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어온 해남농사꾼 오형록씨로, 수필집 ‘농사꾼 시인 오형록 희망일기’(문학화 刊)를 최근 펴냈다.

오씨는 1980년대 후반 서울의 작은 수출업체에서 표구 기술자로 지냈으나 결혼 직후 연로한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귀향을 결심해 해남으로 20여년 만에 돌아와 농사꾼이 됐다.

하지만 2003년 5월쯤 불별더위 속에서 오이를 수확하던 중 번개처럼 시상이 떠올라 문학의 길로 빠져들었다. 일의 노예로 전락한 자신을 발견하고 촌각의 시간을 아껴 글공부를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그해 겨울 난생 처음으로 응모한 문학상에 입상하게 된다. 그것이 2014년 계간 ‘열린시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일이다.



그의 귀촌은 값비싼 수업료를 내야만 했다. 정보보조사업으로 비닐 하우스 991.7㎡(300평)에 고추 모종을 심었으나 미리 토양 살충제를 하지 않아 낭패를 봐야 했고, 양고라도 500여마리로 증식해 부

농의 꿈을 꾸었으나 중국과의 수교로 토끼털 값이 폭락해 무료로 토끼를 나눠주며 비통한 마음을 억눌러야 했다.

‘배추 폐기 처분’ 대목에는 농촌살이의 어려움이 여과없이 드러난다. ‘요즘 마을 곳곳에 가습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애지중지했던 월동배추밭을 갈아엎고 있기 때문이다. 배추 모종부터 정식, 관수, 추비, 농약, 결속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했던 배추밭을 눈물을 머금고 갈아엎는 농민의 마음은 어떨까? 당신은 한 번이라도 농민의 처지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성난 트랙터의 울음소리, 폐기 처분으로 갑자기 끊겨져 나가는 처참한 물결에 트랙터라고 마음이 편할 리는 없겠지. 성난 트랙터의 검은 콧바람이 하늘로 솟아올랐다’고 적고 있다.

그래서 그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날 밤새워 비닐하우스 지붕을 넘나들며 로프 결속 작업을 해야 했던 일 등 누구보다도 열심히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농사꾼으로 보낸 시간들이 여과없이 담겼다.

특히 3장 수록된 ‘일본 여행기’는 2019년 1월에

도쿄의 히가시나카노 인근으로 떠나는 기행문으로, 신주쿠의 재래시장 방문 및 고속열차 로망스가 하코네 유모키행 탑승, 고크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숲속의 유토피아 고라역, 소운잔역에서 탑승한 로프웨이를 통해 보게 된 도겐다인 호수의 비경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보여준다. 생생하고 기승 떨어지는 여행기로 손색이 없다.

오형록 시인은 1962년 전남 해남군 현산면 고당리 출생으로 계간 ‘열린시학’으로 등단한 뒤 시집 ‘붉은 심장의 웅아리’, ‘오늘밤엔 달도 없습니다’, ‘꼭지 따던 날’, ‘희아리를 도려내듯이’, ‘빛 하나가 내게로 왔다’ 등을 펴냈으며 평화 주제 문학 작품상, 시사문단 문학상 등 다수 문학상을 수상했다. 2024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창작지원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됐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평단 호평 발레작 ‘DIVINE’ 감동 무대로

시립발레단 ‘140회 정기공연’ 내달 16~17일 광주에당서
총연출 박경숙·안무 주재만…‘확장된 예술적 감동 선사’

발레계와 평단의 호평을 이끌어 광주시립발레단의 대표 브랜드공연으로 자리잡은 컨템포러리 발레 ‘DIVINE’이 무대에 오른다.

광주시립발레단(예술감독 박경숙)은 제140회 정기공연 ‘DIVINE’을 5월 16일 오후 7시 30분과 17일 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펼친다.

2023년 7월 첫 선을 보인 ‘DIVINE’은 5·18광주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자유분방하며 역동적으로 표현한 컨템포러리 발레 작품이다.

광주의 아픔을 넘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적 순간들을 인류 보편의 동일한 감정으로 전달하고 공감하고자 했다.

2023년 제30회 월간 ‘몸’이 주관하는 무용예술상 작품상, 2024년 제29회 한국발레협회상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발레계와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작품명 ‘Divine’은 ‘신성한, 숭고한, 천상의’란 뜻으로, 5·18 영령들과 가족들 그리고 광주시민 모두를 아우르는 이미지로 차용됐다.

작품은 분노, 고통, 희생, 용서, 치유의 과정을 원초적 몸짓으로 펼쳐나간다. 구체적인 역사적 트라우마를 소재로 했음에도 스토리나 캐릭터를 드러내지 않은 채 환상적이고도 숭고한 미장센에서 참혹했던 그날의 모습을 묵격하게 한다.

‘DIVINE’은 총 3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자유’



광주시립발레단은 제140회 정기공연 ‘DIVINE’을 5월 16일 오후 7시 30분과 17일 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사진은 공연 모습.

라는 주제 아래 5개의 노래와 안무를 선보인다. 무용수들은 바다에 흩뿌려진 젓가무를 내리치며 통곡하는 것으로 고뇌를 표현한다. 2장은 ‘Out of the Darkness’라는 주제로 ‘강물빛’, ‘기도’ 등 4개의 악곡으로 이뤄진다. 무대에 흰 구름 분장을 한 무용수들이 등장하고, 그 사이를 발레리나가 유영하듯 춤을 춘다. 마지막 3장의 주제는 ‘The Di-

vine Human Beings’이다. 순백의 무용수들과 함께 허공에 매달려 있던 배 모양이 지상으로 내려오며 마무리된다.

약 50명의 대규모 출연진은 탄식과 애도의 몸짓, 자유를 향한 절규를 담은 몸바림을 펼친다. 차가운 조명 테두리와 뜨거운 젓가루 문치가 교차하고 적군과 아군의 구분을 상실한 몸들이 순백의 존

재들로 대체되면서 억압과 고통이 구원으로 승화된다.

설명하지 않아도 관객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한 섬세한 움직임과 무한한 해석이 ‘DIVINE’만이 가진 차별성이다. 각각의 동작마다 수많은 이야기를 담은 경이로운 움직임으로 인간을 깊이 사랑하는 안무자의 철학을 느낄 수 있다.

안무가 주재만은 대한민국 광주 출신으로 1996년 프랑스 바를레 국제무용축제에서 최우수 무용수상을 받은 후, 뉴욕 컴플렉스 발레단 부예술감독이자 전임 안무가 겸 발레마스터로 활동하며 2022년 미국 포인트 파크대학 발레 교수로 선임됐다. 현재 세계 유수의 발레단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그는 “작품을 통해 다양한 인간 군상을 표현하고자 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인간적이고 솔직한 모습인 애달픔, 괴로움, 설움, 용기와 같은 감정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총연출을 맡은 광주시립발레단 박경숙 예술감독은 “2023년, 2024년 극찬을 받았던 광주시립발레단의 대표 작품인 ‘DIVINE’을 재공연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이 작품은 역사적 기억과 사실을 춤으로 표현했다. 무용수들의 숭고한 몸짓은 더욱 확장된 예술적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연은 7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 ‘사이언스 봄축제’ 현장.

자연 소중함 ‘사이언스 봄축제’

광주과학관 ‘작은 생명과 그린 지구’
18~20일 곤충 전시체험·과학 이벤트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따스한 봄날을 맞아 자연의 중요성과 생물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2025 사이언스 봄축제: 작은 생명과 그린(Green) 지구’를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사이언스 봄축제는 매년 개최되는 국립광주과학관의 대표 축제로 올해는 과학의 날을 기념해 열린다.

전시, 체험, 반려 가족 이벤트, 토크콘서트, 공연 등 20종 이상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동물·곤충 전시체험’,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알아 가는 ‘환경·생물 만들기 체험존’, 반려동물이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하는 ‘반려가족 운동회’, 함께 참여하는 ‘과학 이벤트’ 등으로 구성된다.

동물·곤충 전시체험은 장수풍뎡이, 개구리, 도마뱀,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앵무새 등 곤충, 파충류, 조류, 포유류 동물을 체험할 수 있다.

애벌레, 장수풍뎡이 등 곤충의 생애주기를 살펴보고, 앵무새 먹이주기 체험도 이뤄진다.

환경·생물 만들기 체험존에서는 친환경 에너지와 버려지는 물건을 이용한 재활용 만들기, 환경오염으로 인해 사라져가는 동물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동물 만들기 체험이 가능하다.

멸종위기 동물 포토존과 지구환경 미로 체험을 통해 자연과 생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흥미로운 체험도 꾸며진다.

또 반려동물과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반려가족 운동회’가 진행된다.

반려 가족 운동회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다. 공 가저고요, 장애물 넘기, 기다려 경기 등 운동경기를 통해 풍성한 기념품을 제공한다. 반려동물과 올바른 소통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토크콘서트도 함께 열린다.

이밖에 반려동물 전문 공연팀의 야외 공연, 환경을 생각하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 환경을 생각하는 지구환경 특공대 뮤지컬, 로봇 강아지와 함께하는 과학관 산책 등 과학관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들 체험해 볼 수 있다.

김현승 선임연구원은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동물들의 서식지가 사라져 멸종동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자연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민들과 함께 열어가야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이언스 봄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전통과 현대 조화’ 신명나는 국악한마당

전문문화관 토요상설공연 내일 오후 3시
창작연희국악단 홀릭 ‘경계 없는 도전’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노희화) 전문문화관은 19일 오후 3시 두 번째 토요상설공연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창작연희국악단 홀릭과 함께 전통의 장단, 아름다운 춤의 선, 리드미컬한 북소리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무대로 관객들을 만난다. 절도 있는 리듬과 품격 있는 에너지로 감각을 일깨우며 보는 것을 넘어 온몸으로 빠져드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창작연희국악단 홀릭은 타악, 한국무용, 판소리를 아우르며 전통과 창작을 접목해 신선한 소재와 경계를 넘나드는 도전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팀이다.

국악이 지닌 애절한, 웅장함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전통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음악과 미

스매치해 새로운 무대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꾸춤’의 절도, ‘국악가요’의 진숙한 감성, ‘4인4색 얹은반 설정구’의 리듬 실험, ‘휘모리 놀다’의 현란한 장단, ‘반고춤’의 경쾌한 선, ‘양금 시나위’의 즉흥적 감성, ‘타’의 폭발적인 에너지가 한데 어우러져 각기 다른 전통의 언어들을 하나의 감각적인 이야기로 풀어낸다.

전문문화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토·토·전!’ (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이라는 슬로건 아래, 절기 관련 체험 및 연희·민속놀이, 한복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사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체험과 공연 등을 모두 즐긴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대화용 타월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토요상설공연의 다음 공연은 오는 26일 광주시 무형유산 제18호 가야금병창 예능보유자인 황승옥 명인과 제자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변건호 작
‘생명과 소멸
90-V’ (1990)

생명의 흐름과 소멸의 과정 엿보다

‘황금박쥐상’ 제작 변건호 개인전 내달 25일까지

‘황금박쥐상’으로 널리 알려진 변건호 작가의 기획개인전이 지난 8일 개막, 5월 25일까지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생명과 예술’이라는 타이틀로 열린 이번 개인전 역시 생명과 예술의 근원적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평생에 걸쳐 탐구해 온 생명의 탄생과 소멸, 혼돈과 질서 등 근원적 주제를 예술적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조명하는 자리다.

작가는 1948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홍익대 미술대학 금속조형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에 걸쳐 함평군의 의뢰로 황금박쥐상을 제작한 바 있다.

생명이 지닌 유한성과 영속성, 그리고 혼돈과 질서의 관계를 조형적으로 탐구해온 작가는 대표작 ‘생명 시리즈’에서 생명의 흐름과 소멸의 과정을 링거병, 불꽃, 물고기 등 시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동시에 금속 조각들로 유

기작하면서도 구조적인 형태를 구축했다.

전시에서는 작가의 조각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시도한 회화작품도 함께 선보이며 확장된 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다. 변 작가는 조형물을 촬영한 후 아크릴과 색연필, 금박 등을 덧입히는 기법을 활용해 생명의 순환과 우주의 질서를 평면적으로 풀어냈다. 올오버 페인팅 기법과 다양한 재료 사용을 통해 생명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함평군은 전시와 더불어 작가의 삶과 예술 세계, 그리고 황금박쥐상 제작의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변건호 작가와의 대화’를 23일 오후 2시 30분 함평군립미술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



▷ 올오버 페인팅=중심이 되는 구도 없이 화면을 균질하게 표현하는 회화를 말한다.